

배구에 빠진 목포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 연일 관중 복적

한국 결승리그 진출 실패

주말 '항구도시' 목포가 배구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14일부터 3일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9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조 예선리그를 관전하기 위해 지역 배구팬들이 연일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브라질·일본 등 세계 강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일 손에 맵을 쥐어하는 열전이 펼쳐지면서 지역 팬들에게 화끈한 주말을 선사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관중들이 많이 들어와 선수들의 멋진 경기장면이 나을 때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와 함께 흥겨운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표팀은 지난 15일 일본에 세트스코어 0-3(13-25 20-25 22-25)으로 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한국은 예선리그에서 1승7패

를 기록, 결승리그 진출이 물거품 되고 말았다.

결승리그에는 주최국 일본과 상위 5개팀이 출전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 8일 오사카에서 일본과 첫 대결에서 1-3으로 역전패했다. 당시 일본의 간판 구리하라 메구미에게 서브 에이스를 8개나 내주며 패했다.

이날도 고질적인 서브리시브 불안이 계속됐다.

여기에 밀었던 김연경(JT 마베라스)의 공격마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1세트부터 일방적으로 밀렸다. 4-5점차로 뒤집던 한국은 9-15에서 세터를 혼예선(현대 건설)에서 이소리(한국도로공사)로 교체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패해 일본과 그랑프리대회 역대 전적에서 7승7패로 동률을 이뤘다. 한국은 7연승 후 최근 7연패를 당하며 일본에 밀리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angju.co.kr



"물웅덩이를 넘어서" 세계육상 장애물경주

이를 넘고 있다.

16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3천m 장애물경주에서 참가 선수들이 물웅덩

/연합뉴스

광주 5연패 4위 추락

전남 4경기 무패 6위

프로축구 지각변동 예고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의 상반된 행보가 K-리그 순위싸움의 지각변동을 예고 한다.

K-리그 전반기 1위 자리를 끝건히 치쳤던 광주 상무는 15일 인천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19라운드에서 골침복속에 0-1로 패했다. 이 날 패배로 상무는 5연패 높에 빠졌다.

수비의 해박법 규와 미드필더 송한복의 부상 속에 '중원의 지휘자' 최원권까지 경고 누적으로 빠진 상무는 전반 43분 인천 강수 일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상무는 이후 거세게 상대 골문을 두드렸으나 승점 지키기 위한 인천의 수비 전략에 막혀 득점을 얻지 못하며 5연패의 궁지에 몰렸다.

반면 7경기 연속(4무3패) 무승仗를 기록했던 인천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며 7승6무4패(승점 29)로 상무(9승2무7패·승점 29)의 4위 자리까지 위협하게 됐다.

상무는 선두권 경쟁에서 멀어진 틈을 타 전남은 4경기 무패 행진 속에 6위까지 뛰어올랐다.

전남 드래곤즈는 15일 홈에서 열린 K-리그 19라운드 경기에서 알렉산더, 슈바, 이규로, 김민호의 골 퍼레이드 속에 강원 FC를 4-1로 제압했다.

지난달 전북 현대에서 이적한 알렉산더가 전반 17분 선제골을 터트린 뒤 전반 42분 슈바가 송정현의 패스를 받아 시즌 9호골을 장식했다.

후반 10분 강원 안성남의 만회골이 나왔지만 후반 30분 이규로의 골이 이어 경기 종료 직전 김민호의 골이 터지면서 전남은 4-1의 대승을 거뒀다.

전남은 최근 4경기에서 2승2무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 순위 싸움에 속도를 더하며 6승6무5패(승점 24)로 6위에 올랐다.

전반기 선두권 싸움을 주도했던 상무의 하락세 속에 조직력이 더해지는 전남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플레이오프를 향한 K-리그의 순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7일(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13 : 50·KBSN SPORTS)

▲대교 눈높이 2009 WK리그 <현대제철> 대교<(18 : 50·KBSN SPORTS)

프리미어리그 한국선수들 '힘찬 출발'

이청용 데뷔전...22분 활약 평점 6

설기현·조원희도 교체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한국인 4종사 가운데 이청용(21·볼턴)과 설기현(30·풀럼), 조원희(26·위건)가 2009-2010 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후반 교체 선수로 투입되어 9개월여 레이스를 시작했다.

선발 명단에 빠진 게 아쉽지만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하지만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불박이 자리를 꿰차며 안정적인 출전 시간을 보장받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한국인 선수로는 일곱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꿈을 이룬 이청용은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청용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선덜랜드와 시즌 개막 경기에서 팀이 0-1로 뒤진 후반 23분 개별 맥간 교체 선수로 그라운드를 밟아 22분을 뛰었다.

이청용은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아 불터치 기회가 적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지만 영국의 축구 전문 채널인 스카이스포츠로부터 '활기 넘쳤다(Lively)'라는 짧은 평가와 함께 평점 6점을 받았다.

소속팀이 없는 '실업자' 신세이면서도 후원 사나 클럽의 지원을 받으며 나온 외국 선수들을 누르고 값진 동메달을 따낸 강칠구는 이날 밤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스키점프' 강칠구 날았다

국제스키연맹컵 K-95 동메달 획득

영화 '국가대표'의 흥행몰이 덕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의 강칠구(25·사진)가 2009 국제스키연맹(FIS)컵 국제스키점프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강칠구는 15일(한국시간) 독일 오버비젠 탈에서 열린 대회 K-95(힐사이즈 106m) 경기에서 1, 2 차 합계 203.3점을 받아 토마스

라크너(오스트리아)와 공동 3위에 올랐다고 16일 선수단이 알려왔다.

1차전에서는 86.5m를 뛰어 9위에 그쳤던 강칠구는 2차전에서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가장 먼 95m를 날아오르며 단숨에 3위로 뛰어왔다.

소속팀이 없는 '실업자' 신세이면서도 후원

사나 클럽의 지원을 받으며 나온 외국 선수들을 누르고 값진 동메달을 따낸 강칠구는 이날 밤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조원희〉

설기현이 자신의 선전을 바탕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서 기량을 인정받는다면 출전 시간을 꾸준하게 늘릴 수 있다. 조원희 역시 미드필더 자리를 놓고 선발 출격했던 제이슨 퀸마스, 앙리 토마스 등과 경쟁해야 한다.

짧은 출전 시간 뒷애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청용과 설기현, 조원희가 치열한 생존경쟁을 뚫고 주전 입지를 굳혀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기현〉

설기현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서 기량을 인정받는다면 출전 시간을 꾸준하게 늘릴 수 있다. 조원희 역시 미드필더 자리를 놓고 선발 출격했던 제이슨 퀸마스, 앙리 토마스 등과 경쟁해야 한다.

짧은 출전 시간 뒷애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청용과 설기현, 조원희가 치열한 생존경쟁을 뚫고 주전 입지를 굳혀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 투자를 뛰어난 개인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육교 바로 아래)

매도, 매수
상담환영

011-641-0925
062)515-4985

• 추천 금매물건 - 팬션부지최적 •

월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865㎡ 가든식당 매매
-식당 (연회석 300석 원비 - 피로연, 회갑연, MT최적),
체육시설 (수영장, 족구장), 농장 (멧돼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숙박업 - 현 성업 중, 모든시설 허가필
-매매가 3.3㎡당 32만원-

■ 고시텔매매 ■ (금년 5월 준공, 최신시설, 풀옵션)

대 282㎡ / 건 560㎡ 룹 52실(룸당 월 23만원)

전대 후문 건너 체육공원 인근 -매 8억 5천

임야

▶ 16,925㎡(계획 관리지역) - 나주 남평(중흥스파랜드 입구)

- 매 3.3㎡당 8만5천원

대지

▶ 683㎡(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남구 진월동(광주대 인근)

- 매 11억

▶ 914㎡- 용봉택지지구 현대 3차 앞 - 매 3.3㎡당 300만원

상가주택

▶ 대 496㎡/건 1,487㎡(6층건물)-오차동 아파트단지 입구

- 매 17억

※ 사원모집 - 상가 중개, 경매컨설팅 하실분 모십니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2009년 제3기)

-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09. 8. 31(월) 9:10 오전반 2009. 8. 31(월) 13:4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8. 31(월)

- 수업기간 2009. 8. 31(월)~2010. 2. 8(월) (6개월/24주)

- 수강료 : ₩300,000

- 모집인원 1단계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30명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반 9:10~13:00

- 오후반 12:40~17:30

-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화 : (062)950-3584, 3585
- 이메일 : 011-614-4160
- 광주은행 0148-107-307803 (예금주: 광주여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 9기)

구 분

• 개강일시

금요일 2009. 9. 4(금) 09:10

토요일 2009. 9. 5(토) 09:10

모집기간